

Langweile Γσνδ Langweile Lang Langweile

당신이 현실에 존재하는 순간
원원

유승윤
Seungyoon Yu

Concept and Motif

Heidegger talks about boredom (Langweile), and superficial boredom (oberflächige Langweile) is boredom that is caused by oneself or the surroundings. He said that people do not solve the problem, but make small talks and kills time, making a vague conclusion about the problem and fleeing from reality. Conversely, deep boredom (tiefe Langweile) means boredom for no reason. It is impossible to kill time for deep boredom, but Heidegger argues that the way to overcome it is "Existence". Existence is finding one's reason for existence in oneself, not in others.

I feel boredom. Whether it is superficial or deep boredom, it is not known, but the symptom is laziness. I know what to do to "exist", but I don't do it. Langweile, the German expression, has the meaning of boredom, but when translated, it is 'long while'. So, with boredom, I have a different unit of time than others. They are living on a different time axis. In this way, in fact, everyone's time axis is different, but there are many people living in the majority of the time axis with the name 'reality' or 'present' like a normal distribution. Aligning to this time axis is painful, but since the majority live on that time axis and are trying to fit it, the few are forced to ride. It is to give up existence.

In my laziness, depression, anxiety, panic, and wandering, I tried hard to fill the gap with 'reality', that is, 'other people'. As Heidegger said, daily life masks this boredom to some extent and forces me to imprint the current time axis. In such a daily life, ontological worries about me — depression, anxiety, and things like that are regarded as something special, and only when the axis is right, I am considered a normal person. So, rather, it's a bit peculiar, but when it comes to saying that it's okay, I feel that I should be more peculiar. I feel that I have to live on my time axis. However, 'reality' is not easy. This is because it is an immediate livelihood problem. So, when I come to the real time axis, I do the most real work while showing the competence of one person. I get a lot of ideas, thoughts, and insights from another daydreaming time axis, but bringing them to reality is only possible in a limited amount of time.

하이데거는 권태(倦怠, Langweile)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표면적 권태(oberflächige Langweile)란 자기 자신 또는 주변에 의해 생기는 권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와 내 주변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잡담과 시간 죽이기를 하면서 애매하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깊은 권태(tiefe Langweile)는 아무 이유 없는 지루함을 뜻한다. 깊은 권태에 대해서는 시간 죽이기가 불가능한데, 하이데거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실존'이라고 주장한다. 실존이란 자신의 존재이유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

나는 권태를 느낀다. 그것이 표면적 권태인지 깊은 권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증상은 다름아닌 게으름이다. 실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어 표현인 Langweile는 권태의 의미를 가지지만 풀어쓰면 '긴 시간 동안'이다. 그러니 권태를 가진 나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시간 단위를 가지게 된다. 다른 시간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시간축은 다 다른데, 단지 '현실'이나 '현재'라는 이름을 가진 대다수의 시간축에 정규분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축에 맞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수가 그 시간축에 살고 있고 또 맞추려 하고 있기에 소수는 어쩔 수 없이 편승하게 된다. 실존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게으름과 우울과 불안과 공황과 방황 속에서 '현실', 즉 '다른 사람들'와의 간극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 일상은 강제로 현재의 시간축을 나에게 각인시킨다. 그런 일상 속에서 나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 — 우울과 불안과 그런 것들은 무슨 특별한 일로 치부되고, 축이 가끔 맞을 때에만 나는 정상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특이하지만 괜찮다는, 나를 칭하는 말에서 나는 오히려 더 특이해져야 함을 느낀다. 나의 시간축에서 살아야 함을 느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생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의 시간축에 왔을 때 나는 그나마 한 사람 분의 역량을 보이면서 최대한의 현실의 일을 한다. 공상에 잠긴 다른 시간축에서 나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인사이트를 얻지만 그걸 현실로 가져오는 것은 한정된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일 뿐이다.

Project Walkthruogh

Everyone lives on a different time axis, and the words 'reality' or 'present' are expressed in agreement with GMT. I try to make a new clock outside of this time axis, and put my own time axis there.

Web site(p5.js, etc.) and webcams will be used.
Installation location is undecided.

The audience sits in front of a laptop with a webcam and sees two watches. One clock represents GMT and the other clock is arbitrarily manipulated. The webcam(or filter) turns on and off for a few seconds around the time the two clock cycles overlap

The goal of this work is to show the compromise between existential and realistic actions. Heidegger's existence and practice for it proceed on his own time axis, but because there is a clear gap with reality, he has to return to the real time axis (GMT) from time to time. Survival is impossible without returning to the real time axis.

모든 사람은 다른 시간축에 살고, '현실', 또는 '현재'라는 말은 GMT로 합의되어 표시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시간축을 벗어난 새로운 시계를 만들고, 거기에 나만의 시간축을 담으려 한다.

웹(p5.js, etc.)과 웹캠이 사용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미정이다.

1.
관객은 웹캠이 있는 노트북 앞에 앉게 되고, 두 개의 시계를 보게 된다. 하나의 시계는 GMT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의 시계는 임의로 조작된 시계이다. 두 시계는 코딩으로 모니터상에 표시되며 아날로그의 형태로 초침만 표시된다. 두 시계의 초 주기가 겹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필터가 걸렸다 풀리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이다.

2.
관객과의 인터랙션 방식 - 자신이 자신의 권태를 입력하는 방식과, 작가의 권태만을 보여주는 방식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작품의 목표는 실존적 행위(기획투사)와 현실적 행위와의 타협점을 잡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과 그것을 위한 실천은 자신의 시간축 위에서 진행되지만, 현실과의 간극이 분명 존재하므로 현실의 시간축(GMT)로 가끔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시간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